

한양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모의논술예시답안

인문 계열

제시문 (가)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연대'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고유하게 유지한 채 공감과 소통의 공존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가령 분업에 기초한 호혜적 공존 가능성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사회의 영역이 확장되어가고 구조가 고도화되는 흐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일러 제시문은 '유기적 연대'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나)는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그것이 터지면 크나큰 피해를 입듯이 사회 구성원과 소통을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매섭게 경고하고 있다. 주나라 여왕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연의 원리에 공동체 구성원이 가질 법한 소통의 원리를 비유하여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제시문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강한 권력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백성들은 마치 터져 나오기 직전의 물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그러한 억압과 침묵의 분위기를 넘어 구성원들끼리 연대와 소통을 긴밀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내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 제시된 시 작품은 이러한 공동체를 구축해가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함축적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하루살이나 메뚜기에게도 각자 그 나름대로 삶의 무게와 속도가 있고 그것을 코스모스 한 송이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장면을 통해 시인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공동체를 역설하고 있다. 그렇듯 시인도 낡은 담벼락이 되어 모든 생명의 눈물을 받아내고 있는데, 공동체가 진정한 연대와 소통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눈물의 마음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임을 이 작품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앞에서 읽은 '새로운 연대'와 '진정한 소통'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자연의 원리에 의해 '기계적 연대'는 극복되고 '유기적 연대'가 강화되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